■ IMO, 단일선체 유조선과 TBT 규제에 관해 논의[3)]

○ IMO[4)]는 이번 런던에서 열린 환경위원회에서 단일선체 유조선의 기존 운항 금지 기한을 2026년에서 2017년으로 앞당긴다는 초안에 합의함

- 이는 EU의 정치적 압력에 의해 단일선체 유조선의 국제적 규제가 강화된 것임
  - EU는 2015년까지 EU 역내에서 단일선체 유조선에 대한 일방적인 사용 금지를 제안한 바 있음
  - 이번 IMO에서 단일선체 유조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것에 대해 우선 만족을 표함

○ 그러나, 선체에 TBT[5)] 함유 도료의 사용을 금지하는 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함

- 지난해 IMO는 2003년부터 선박의 선체에 TBT 함유 페인트의 사용을 금지하며, 2008년까지는 TBT 함유 페인트를 사용한 선박의 운항을 완전히 금지시킬 것에 합의한 바 있음
  - 그러나 많은 국가들은 이런 TBT 규제가 예정대로 이행될 수 있을지 의문을 표함

○ IMO는 2001년 4월에 단일선체 유조선과 TBT 규제 문제에 대해 다시 논의할 예정임

- 특히, 단일선체 유조선 규제에 관해서는 이번에 합의된 2017년 안이 EU의 일방적인 사용 금지 안인 2015년으로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 IMO 관계자들은 해양과 항구의 환경보전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해양활동 및 선박에 관한 규제를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천정용(cildon@hanmir.com, 02-3669-4099)

3) 2000년 10월 10일, 에코브리프 23호, ‘EU, 단일선체 유조선에 대한 규제 강화 제안’,
2000년 10월 10일, 에코브리프 23호, ‘UN, 선박에 유해 TBT 함유 도료 사용 금지 제안’ 참조

4)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의 약자이며, 해양안전과 선박으로부터의 해양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진 UN 특별기구임

5) Tributyltin : 선박이나 漁具 등에 사용되는 방오도료의 생물탈착제로 사용되고 있으며, 선체로부터 해양환경으로 조금씩 용출되어 해양 퇴적층에 농축되며, 특히 대형 선박의 출입이 잦은 항구 주변에 오염이 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극히 낮은 농도라 하더라도 매우 유독할 뿐만 아니라 생물농축성이며, 동물의 홀몬시스템을 교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